

★ 법률 개정안 5 지지 발언 ★

California의 소환 절차는 부패하거나 권력을 남용하는 선출직 공직자를 해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우리의 민주주의를 보호해야 합니다. 소환 절차는 정치적 또는 당파적 책략으로 선거를 ‘다시 치르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법률 개정안 5는 소환 절차를 공정하고 민주적이며 다수의 의사에 책임을 지도록 만들어 본래의 목적을 회복할 것입니다.

현행법에 따라 주 전체 소환 투표 용지는 유권자에게 다음 두 가지 질문을 순서대로 묻습니다.

(1) 해당 공직자를 소환해야 하나? (2) 그렇다면 누가 그 공직자를 대신해야 하나?

이 두 질문이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위험한 허점이 생깁니다. 선출직 공직자는 근소한 과반수로 해임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2번 질문에 기재된 후보자는 선거에서 투표된 표의 50%에 훨씬 못 미치는 득표율로도 해당 공직에 당선될 수 있습니다. 이는 정치 세력이 정기 선거에서 이기지 못했던 공직자를 표적으로 삼고, 대중의 광범위한 지지를 받지 못하는 후보자를 앉히는 수단이 됩니다.

2021년 주지사 소환 선거에서 이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유권자들은 이를 단호하게 거부했습니다. 소환안이 패배한 표 차이는 주지사가 정기 선거에서 승리한 표 차이와 거의 같았습니다. 그러나 California 납세자들은 유권자들이 이미 내린 결정을 재확인하는 데 그친 선거를 위해 2억 달러 이상을 지출해야 했습니다. California의 투표 가능성이 높은 유권자 중 거의 70%가 이를 세금 낭비라고 평가했습니다. 소환이 성공했다면, 가장 많은 표를 받은 후보자는 전체 소환 선거 유권자의 약 28%의 지지만 받고 취임했을 것입니다.

법률 개정안 5는 상식적인 한 가지 변경을 합니다. **소환 투표 용지에서 두 번째 질문을 삭제합니다.**

법률 개정안 5에 따라 주 차원의 소환에서 유권자는 매우 간단하면서도 중요한 한 가지 질문, 즉 공직자를 해임해야

하는지만 결정하게 됩니다. 과반수가 찬성표를 던지면 해당 공직은 공석이 되고 기존 공석 충원 규정에 따라 충원됩니다. 주지사가 소환되면 부지사가 주지사가 되며, 소환이 충분히 이른 시기에 이루어지면 유권자들은 다음 주 전체 선거에서 후임자를 선출합니다. 그 밖의 주 전체 공직자는 기존 규정에 따라 임명으로 충원되고, 주 의회 의석은 특별 선거로 충원됩니다. 지름길도, 허점도, 유권자 과반수의 지지 없이 후임 후보자가 공직에 당선되는 일도 없습니다.

소환 제도가 있는 대부분의 주에서는 공석을 충원하기 위해 후임자 선거를 같은 날 치르는 것이 아니라, 승계 또는 별도의 선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법률 개정안 5는 두 번째 질문을 없앴으로써 당파적 이익을 위한 지름길로 소환을 무기화할 유인과 가능성을 없앱니다. 소환을 악용하여 정기 선거 결과를 뒤집거나,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당선되지 않을 후보자를 공직에 앉힐 수 없게 됩니다.

우리 소환 절차를 만든 이들은 부패하고 책임을 지지 않는 공직자로부터 유권자를 보호하려 했지, 마음에 들지 않는 선거 결과를 정치 세력이 뒤집을 수 있는 무기를 제공하려 한 것이 아닙니다. 법률 개정안 5는 소환을 책임을 묻는 수단으로 유지하면서 정기 선거와 다수결 원칙을 우회하는 데 이용되지 못하도록 합니다.

다수결 원칙을 보호하고 납세자를 지키며 California의 소환 절차를 본래 그 대상인 유권자에게 되돌리기 위해 **법률 개정안 5에 찬성 투표**하십시오.

Lorrel Plimier, 공동 회장

California 여성유권자연맹

Darius L. Kemp, MPA, 전무

California 커먼 코즈

Dan Schnur, 전 위원장

California 공정정치위원회

★ 법률 개정안 5 지지 발언에 대한 반론 ★

상대측이 억지 논리를 펴며 여러분을 혼란스럽게 하고 도저히 말이 되지 않는 주장을 이해시키려는 시도는 무시하십시오.

그들은 법률 개정안 5가 “민주주의를 보호한다”고 말하지만, 정반대입니다. 소환된 정치인을 누가 대신할지 선택하는, 우리 소환 절차의 핵심 요소 중 하나를 훼손합니다.

이는 민주주의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 엘리트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California의 제도를 “위험한 허점”이라고 부릅니다. 이 제도는 100년 동안 제대로 기능하며, 직권을 남용하는 정치인을 축출하고 유권자들이 더 잘할 것이라고 판단한 사람으로 교체했습니다.

법률 개정안 5는 허점을 막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허점을 만들 것입니다.

상대측은 여러분이 현실을 의심하도록 호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눈치채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속지 마십시오.

고장 나지 않았다면 고치지 마십시오. 우리의 소환 절차가 ‘고장 났다’고 느끼는 사람은 그 절차의 대상이 된 사람들뿐입니다.

선거 공약을 어기고 세금을 인상한 뒤 소환 당한, 법률 개정안 5의 발의자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제 그는 임기를 마치며 이 제도를 무너뜨려 향후 소환의 효과를 떨어뜨리고 자신과 같은 정치인에게 책임을 덜 묻게 하려 합니다.

차를 보상 판매한다면 무엇을 받게 될지 알고 싶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이미 거래를 확정된 뒤 판매 직원이 자기 마음대로 고른 낡은 차를 여러분에게 떠넘기도록 아무것도 모른 채 서명하시겠습니까? 법률 개정안 5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앙심을 품은 정치 엘리트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손대도록 내버려두지만 않는다면 우리의 소환 제도는 앞으로도 아무 문제 없이 잘 작동할 것입니다.

아니오에 투표하세요!

Brian W. Jones, 상원 소수당 원내대표

Joe Patterson, 주 하원위원

★ 법률 개정안 5 반대 발언 ★

법률 개정안 5는 여러분의 목소리를 빼앗고, 무능하거나 부패한 정치인을 공직에서 해임하고 교체할 수 있는 여러분의 권한을 약화시킬 것입니다.

California 정치인들은 이미 너무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률 개정안 5는 유권자인 여러분에게서 권력을 빼앗아 정치인들에게 더 많은 권력을 줍니다.

1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California의 소환 절차는 직권을 남용하거나, 약속을 어기거나, 선출된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선출직 공직자를 해임할 권한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발생하는 경우, 현행 절차에서는 정치인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 후임자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법률 개정안 5는 그 제도를 영구적으로 바꾸고 주민에게서 권력을 빼앗습니다.

현재 소환 선거에서는 두 가지 간단한 질문을 합니다. 선출직 공직자를 공직에서 해임해야 합니까? 그렇다면 누가 그 공직자를 대신해야 합니까? 즉, California 주민들은 무능한 정치인을 해임하고 즉시 그 자리를 맡을 새 사람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법률 개정안 5는 첫 번째 질문은 그대로 두면서 후임자에게 투표할 수 있는 여러분의 권한은 없앱니다.

대신 Sacramento의 정치권 내부자들이 그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결정합니다. 많은 경우 유권자가 아니라 정치인들이 공석을 누가 채울지 직접 결정하게 되어, 사실상 여러분이 방금 축출한 사람을 대신해 자신들의 친구나 정치적 동맹 중 한 명을 임명할 수 있게 됩니다.

다른 경우에는 즉시 후임자를 정하는 대신 의석이 공석으로 남아 있다가 몇 달 뒤 납세자인 여러분이 비용을 부담하는 또 다른 값비싼 선거가 예정됩니다. 더 기막힌 점은, 무능이나 부패 때문에 여러분이 방금 쫓아낸 그 정치인이 다음 선거에 다시 출마해 방금 잃은 의석을 되찾는 것이 허용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경우든 여러분의 표가 갖는 영향력은 줄어들고 정치권은 더 많은 통제권을 갖게 됩니다.

California 주민들은 선출직 공직자를 해임하고 그다음 사람을 선택할 권리를 누려야 합니다. 법률 개정안 5는 그 권리의 절반을 빼앗으며, 이는 잘못된 일입니다.

지지자들은 이 법안이 민주주의를 개선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민주주의란 Sacramento 정치인이 아니라 유권자가 지도자를 선택하고, 언제 그들을 쫓아낼지, 누구로 교체할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법률 개정안 5는 이러한 기본 원칙을 훼손합니다.

스스로 물어보십시오. 주지사나 다른 주 전체 선출직 공직자를 해임하기로 투표한다면, 그 후임자도 여러분이 결정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답은 분명합니다.

애초에 이 법안이 왜 투표에 부쳐졌는지 생각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고장 나지 않았고 100년 넘게 잘 작동해 온 제도를 왜 고치려 합니까?

이 제안의 발의자 본인은 세금을 올리지 않겠다는 약속을 어기고 유류세 인상에 투표했다가 California 유권자들에 의해 소환되었습니다. 그는 국민의 뜻을 존중하는 대신, 이제 규칙을 다시 써서 자신과 같은 정치인들이 실질적인 책임을 지지 않도록 보호하려 합니다.

California의 소환 제도는 정치인이 아니라 주민의 것입니다. 여러분의 목소리를 지키십시오. 여러분의 표를 지키십시오. 선출직 공직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십시오.

법률 개정안 5에 반대표를 던지세요.

Brian W. Jones, 상원 소수당 원내대표
Joe Patterson, 주 하원위원

★ 법률 개정안 5 반대 발언에 대한 반론 ★

현혹되지 마십시오. 법률 개정안 5는 과반수 투표로 공직자를 소환할 수 있는 여러분의 권한을 유지하면서, 적은 득표율로 후임 후보자가 취임할 수 있게 하는 허점을 막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유권자는 과반수 투표로 공직자 해임 여부를 결정하지만, 후임자는 과반수에 훨씬 못 미치는 득표율로도 당선될 수 있습니다. 2021년에는 후임 후보자가 소환 선거 유권자의 28% 지지만으로 주지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는 다수결 원칙이 아닙니다.

반대측은 법률 개정안 5가 여러분의 선택권을 빼앗는다고 믿게 하려 합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진짜 질문은 California 유권자 중 극히 일부의 지지만 받은 사람이 주지사가 되어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법률 개정안 5는 소환 제도를 유지하면서 공직자 해임 여부에 관한 결정과 그다음 공직을 누가 맡을지에 관한 결정을 분리합니다. 주지사가 소환되면 California 유권자들이 주 전체에서 선출한 부지사가 유권자들이 정기 선거를 통해 다음 주지사를 선택할 때까지 정부의 연속성을 유지합니다.

유권자들은 계속해서 자신들의 선출직 공직자를 선택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 전체 공직에 출마하는 후보자는 소환을 권력을 얻기 위한 지름길로 이용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자격, 경력 및 California를 위한 계획을 바탕으로 정기 선거에서 해당 공직을 얻어야 합니다.

소환은 공직자가 계속 재임할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누가 통치할지를 선택하는 일은 후보자들이 California 유권자의 지지를 얻는 정기 선거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법률 개정안 5는 소환 제도를 보호하고, 다수결 원칙을 존중하며, 후보자가 자신의 역량을 바탕으로 출마하도록 보장합니다. 법률 개정안 5에 찬성표를 주십시오.

Lorrel Plimier, 공동 회장
California 여성유권자연맹

Darius L. Kemp, MPA, 전무이사
California 커먼 코즈